

# 무대 위 그때 그시절 풋풋했던 우리



연극 '사춘기 메들리'가 오는 26일 남도소리올림터 무대에 오른다. 공연의 한 장면.



<전남문화재단 제공>

## 청춘 성장극 '사춘기 메들리' 26일 무안 남도소리올림터 확인근 작가 동명 다음 웹툰 원작...애뜻한 추억 '세대공감'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한 작은 학교로 전학 온 첫날. 눈발이 펄펄 내리는 풍경, 비에 젖은 흙내음, 삐걱이는 교실 문까지 모든 것이 낯설다.

운동장 너머로는 소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반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말 걸기가 어렵다. 학창시절 전학을 가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다.

아련한 기억 너머로 사춘기의 추억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청춘 성장극 '사춘기 메들리'는 청소년기의 정서와 첫사랑의 떨림, 가족과 이웃에 대한 애정을 담은 작품이다. 오는 26일 오후 4시 30분 무안 남도소리올림터에서 상연되는 '사춘기 메들리'는 청소년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애뜻한 추억을 환기한다. 팀플레이예술기획·극단하림 공동제작, 전남문화재단 주관.

주인공은 전학생 정우. 전근이 잦은 아버지 탓에 늘 전학을 다녀야 했던 그는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귄 틈 없이 낯선 교실에 적응하길 반복해왔다. 심지어 이번에는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왔다.

처음엔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정우는 또 한 번 전학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차피 또 떠나야 하나, 막나가버리자!' 마음속에 쌓아뒀던 감정을 터뜨린 그는 지금까지 상상만 했던 일들을 실전에 옮기기 시작한다.

정우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을 하나둘 실행에 옮긴다.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반장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백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던 일진에게는 결투를 신청한다. 조용했던 정우의 갑작스러운 돌변에 교실은 술렁이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린다. '꿈 안 볼 애들이니까'라며 태연하게 굴던 정우 앞에 뜻밖의 소식이 떨어진다. "전근이 취소됐어. 이제 전학 안 가도 돼." 사춘기의 무모하고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작품은 확인근 작가의 동명 다음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됐다. 감성적인 그림체와 잔잔한 서사로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던 이 웹툰은 이후 드라마로도 제작되며 인기를 끌었다. 연극은 원작 특유의 감성과 서사를 무대 위로 옮겨오며, 청춘의 떨림과 무모함을 생동감 있게 풀어냈다. 웹툰의 감

성적인 작화를 소극장에 옮겨온 무대와 10대의 떨림과 무모함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는 배우들의 연기도 감상 포인트다.

정우의 결심이 불러오는 유쾌한 반전과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해프닝, 수줍고도 솔직한 대사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청춘의 한 페이지를 상기시킨다. 특히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거나 역할을 부여하는 연출은 무대와 객석 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특별한 장치 없이도 깊은 공감을 유도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시골 학교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남 지역 관객들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실 복도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 학교 앞 문방구, 자전거를 끌고 가던 여름 오후의 풍경은 시골학교를 다닌 이들에게는 익숙한 기억이자, 청소년들에게는 현재진행형의 일상이자.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사춘기 메들리"를 통해 잊고 있던 첫사랑의 기억, 그때의 설렘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7세 이상 관람 가능.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방학은 '하하하 놀이터'에서 신나게

ACC, 다음달 2~24일...이야기·탐험·창작 등 문화예술 체험



여름방학 프로그램 '한여름 밤의 탐험대: 구해줘! 라마야나'의 한 장면.

<ACC재단 제공>

노래하고 춤추며 뮤지컬 무대에서 보고, 옛날 탐험가처럼 바다를 누비고, 나만의 AI 로봇도 직접 만들어보고..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어린이창작실험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에서 오는 8월 2~24일.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하하하(夏夏夏) 놀이터'. 이야기, 탐험, 창작 세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총 12종의 문화예술 체험이 펼쳐진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하하하(夏夏夏) 놀이터'. 이야기, 탐험, 창작 세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총 12종의 문화예술 체험이 펼쳐진다.

우선 아이들의 언어 감각과 예술적 표현력을 길러주는 '이야기 놀이터'에서는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을 완성하는 '롤러볼라 영어 뮤지컬 놀이터'가 대표 프로그램이다.

ACC 창작작 공연 '시아와 친구들: 트레저헌터스'의 주인공이 되어 노래하고 춤추며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경험은, 배우와 놀이가 맞닿은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 김소라 작가와 함께 가족의 기억을 되새기는 '우리의 작은 기념일' 수업도 마련된다. 집에서 가져온 사진과 물건으로 플라주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한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예술로 기록하는 시간이다. 완성된 작품은 전당 내 어린이가족창작라운지에 전시돼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남는다.

탐험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모험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기다린다. ACC 기획전 '문손으로 열린 세계'와 연계된 '보물 탐험대' 시리즈는 인도네시아의 바닷길을 따라가는 항해 체험으로, 역사와 지리를 동시에 배우며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가 진 뒤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야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한여름 밤의 탐험대: 구해줘! 라마야나'에서는 인도 고전서사시 '라마야나'를 배경으로 사라진 공주를 찾는 미션을 수행하며 문화적 상상력을 확장한다.

전시 기반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인 'ACC 어린이 탐험대: 뉴욕의 거장들'도 눈에 띈다. 또래 해설사의 설명을 따라 세계적 미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예술 창작 활동까지 이어지며, 전시를 몸으로 익히는 입체적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8월 23일에는 어린이들의 꿈과 진로에 영감을 줄 특별 강연도 준비됐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한국인 최초 토니상을 수상한 박천후 작가가 ACC를 찾아 창작과 무대 뒤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실제 창작자의 목소리를 듣는 이번 강연은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분야의 생생한 직업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혜원 기자 hey1@

## 신해진 교수 '영남인물고' 완역 첫걸음

1권 발간...학술적 주석, 원래 문적까지 대부분 번역

지난해 전남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정년 퇴임한 신해진(사진) 교수가 '영남인물고' 완역을 향한 첫 문을 열었다.

최근 신 교수가 '영남인물고' 1권을 발간한 것. 신 교수에 따르면 '영남인물고'는 영남지역 57개 고을 인물 860명 생애와 행적을 다양한 문헌에서 골라서 뽑고 군현별로 편찬한 고문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10책(권1~권10)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총목과 도목을 포함해 7책(권11~권15)

이 소장돼 있다.

신 교수는 "영남인물고"는 원래 규장각에 보관해왔지만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66종 938권을 일본으로 가져갈 때 7책도 반출돼 규장각에는 10책만 남게 되었다"며 "지난 2011년 조선왕조 도서가 일본으로부터 반환돼,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될 때 완질을 이뤘다"고 전했다.

'영남인물고' 번역은 지난 1967년 강주진 등에 의해 일본에 있었던 부분은 제외하고 번역된 바 있



다. 이후로 재번역이나 완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술적 작업은 진척되지 않았다.

이번에 신 교수는 학문적 토대를 갖추기 위해 학술적 주석을 포함해 원래 문적까지 대부분 번역해 함께 수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고종 하사품 '나전 삼층장' 국가유산 된다

2022년 아펜젤러 가문 국내 기증

고종(재위 1863~1907)이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1858-1902)에게 하사했다고 전하는 전통 가구가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이 소장한 '나전산수무늬삼층장'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3일 예고했다.

나전산수무늬삼층장은 19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로 114.9cm, 세로 54.6cm, 높이 180.3cm 크기의 장은 검은 옷빛 바탕에 나전의 오색영롱한 빛이 정교하게 장식돼 있다.

장면과 양쪽 측면은 전통 회화와 공예가 결합한 산수 문양, 문자 등이 어우러지며 6개의 문짝 안쪽에는 밝고 화려한 색채로 화초, 돌 등을 그려 넣었다.

나전 삼층장은 배재학당을 설립한 아펜젤러 가문에서 대를 이어 보관해 온 유물이다.

김기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1885년 조선에 와 청년들에게 영어와 신학문을 가르쳤으며, 1887년 서울에 벨렘 예배당(지금의 정동제일교회)을 설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2022년 아펜젤러의 외증손녀인 다이앤 도지 크롬 씨로부터 삼층장을 기증받았다. 크롬 여사는 아펜젤러의 둘째 딸인 아이다 아펜젤러의 손녀다.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